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1 ~ 3/1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한권으로 읽는 불교 이야기	성기용	운주사
2	꽃잎이 떨어지듯 꽃은 지지 않네	법상선 회초	여백	7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3	숫나비따따 (빠알리원전번역)	일야스님	불광출판사	8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4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9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법상선 회초	민족사
5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스님	민족사	10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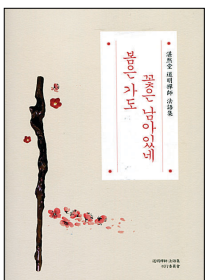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서 도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원 안에 있는 뒷줄 왼쪽 네번째가 도명 스님.

“마음이 부처니 마음 밖에서 부처 찾지 맙시다”

봄은 가도 꽃은 남아 있네

도명선사법어집간행위원회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비매품



담연당(湛然堂) 도명(道明) 대선사(大禪師) 열반 20주기를 맞아 법어집인 <봄은 가도 꽃은 남아 있네>가 출간됐다.

이번 법어집을 출간한 도명문도회 대표 화암사 주지 동선 스님은 “은사(因事) 도명 대선사(大禪師) 법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문인 제자들은 매우 소중한 법연(法緣)의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담시(談詩) 아쉬운 것은 도명 대선사의 가르침과 행장이 글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인 제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 대선사 열반 20주년을 맞아 은사(因事)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설하셨던 법어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어집에 실린 법문의 본래 의미를 확인해주시길 은사가 없다고 하나, 그 본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은사 스님의 법어는 고구정령하여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책에는 평생의 수행 도반이던 큰 스님들의 회고담도 등장해 진한 우정의 훈훈함을 후학들에게 전한다. 행장은 대선사와 평생 도반(道伴)의 정을 나눈 조계종 재심회계 위원 정후(正休) 스님이 썼으며, 법어집 서문은 역시 도반이던 백담사 무공선원 조실 무산(霧山) 오현(五鉉) 스님이 적었다.

무산 스님은 서문에서 “선사는 일찍이 남다른 정진력으로 진체의 오묘함을 알아차린 뒤에는 강호를 넘나들며 대해를 뒤집고, 수미산을 거꾸러뜨리며, 허공을 부수는 기량을 보여주었다. 한때 오대산주(五大山主)가 되어서는 도속(道俗)을 인도(引路)하되 태백준령을 오가는 별과 달과 구름과 바람이 서로 불상(不相關)이나 또한 함께 어우러지는 이 사(理事)무(理事)무(無碍)한 도리(道理)를 보였다. 하나를 물으면 열을 가르쳐주고, 토끼를 보면 매를 날리며, 바람을 보아 불을 놓으니 그 선교방편(善巧方便)은 천하대중을 안지(安之)케 하려는 것이었다”며 도명 스님을 회고했다.

이번 책은 △화보 △서문 △깨침의 법어 △선맥(禪脈)을 찾아서 △도명스님 행장 △담비문 △연보 △후기 순으로 구성됐다. ‘깨침의 법어’는 도명 대선사가 남긴 주제별 법문을 묶은 것이고, ‘선맥을 찾아서’는 초조 달마 대사에서 임제 의현 선사까지 기라성 같은 중국 선사들의 가르침을 살한 내용을 가려 뽑은 것이다. 법어집 내용을 보면, 도명 대선사는 ‘우주 만법이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 우주 만법(萬法)은一心(一心)은萬法(萬法)임을 간파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깨침의 법어에 실린 <관시하인(觀是何人) 심시하물(心是何物)> 내용을 보자. “마음은 참으로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조사들은 한결같이 ‘한 물건’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맙시다.”

도명 대선사 입적에 대해서도 정후 스님은 행장서 이렇게 묘사했다. 금조도방하(今朝都放下) / 본성원무애(本性元無碍) / 무론거여주(無論去與住) / 수처진오가(隨處盡吾家) (오늘 아침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 / 본래자성에는 걸림이 없네 / 오고 가는 것을 논하지 말라 / 이르러는 곳마다 나의 집이다.)

선사는 열반송을 남기고는 열로 돌아누운 후 말이 없었다. 1995년 2월 10일 주석처인 보문사서 생멸(生滅)의 한 생애를 마감하고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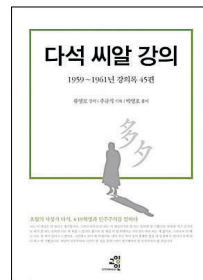
도명 대선사는 1961년 대구 파계사에서 출가해, 1962년 고승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았다. 이후 1965년 석암 선사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1967년 속리산 법주사 강원에서 수학한 뒤, 1978년 대구 남지장사 주지, 1979년 강릉 보현사 주지, 1980년 상원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후, 1984년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 1984년 조계종총무원 사회부장, 1985년 조계종총무원 규정부장을 거쳤다. 1985년 오대산 월정사 주지에 취임했다. 한편, 도명 대선사 법어집은 3월 28일 오전 10시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 봉행되는 도명선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에서 부처님 전에 봉안될 예정이다. (033)633-1525

김주일 기자

“얼나로는 부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

다석 씨알강의

박재현 지음 | 푸른서 펴냄 | 1만5천원



<다석 씨알 강의>는 다석 류영모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진귀한 현장 기록이자 다석 사상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데 특히 중요한 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석사

상은 주로 ‘육망과 생사(生死)의 노예인 제나(自我, ego)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인 얼나(靈)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깨달음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런데 <다석 씨알 강의>에는 철저한 금욕의 삶과 공부로 통해 깨달음에 이른 큰 사상가의 모습만이 아니라, 독재에 반대하고 혁명을 높이 평가하는 민주주의자 류영모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1960년 4·19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다석은 YMCA 연경반 강의를 학생들의 의거에 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다석은 평생 쓴 일기 <다석일지> 외에 스스로 책을 써서 남기지 않았다. 현재 다석과 관련된 책들은 다석이 직접 구술하거나 쓴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려는 제자들의 기록이거나 다석 사상을 해설서가 전부이다. 다만, 다석이 1956~1957년에 서울 YMCA에서 한 연경반 강의의 속기록 전문을 다듬어 출간한 <다석강의>와 1971년 8월 전남 광주에 있는 금옥 수도 공동체 ‘동광원’에서 일주일간 강의의 녹음 테이프를 풀어 옮긴 <다석 마지막 강의>가 있어 다석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다석 씨알 강의>가 다석과 그의 사상을 알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목마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

<다석 씨알 강의>는 모두 45편의 강의를 담고 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주규식이 1959년 11월 6일부터 1961년 11월 17일까지 다석의 강의 내용을 기록한 노트를 저본으로 삼았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 종로 YMCA 강의 외에 다석의 자택(은평구 구기동)을 찾아가 들은 강의와 다석이 다른 곳에서 한 강의도 담겨 있다. 주규식은 다석의 말투까지 살려서 적을 정도로 꼼꼼하게 강의를 기록했으나, 속기가 아니

었기에 전체 강의 내용을 온전히 담지는 못했다. 다석은 자신이 지은 시조나 한시, 성경 구절 풀이, 사서삼경 풀이를 한지에 직접 적어 와서 칠판에 붙여놓고 강의했다고 한다. 이 책은 주규식의 노트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 강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노트에 기록된 내용 외에 추가로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함께 강의를 들었던 박영호가 풀이 글을 따로 썼다.

다석 류영모는 오늘 하루살이(一日一生)의 철학으로 잠자는 것과 죽음을 똑같이 보고 하루를 평생으로 여기며 매일 죽는 연습을 했다. 그에게 몸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현실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죽을 너머의 삶, 깨달음에만 몰두한 초월적 종교가로서 다석을 상상하게 된다. 그렇다면 ‘행동하는 사상가’로서 일평생 민주화

동서고금 종교와 철학 하나로 꿰뚫어 “삶은 사형수의 집행 유예 기간” 주장 55년 만의 강의 45편...노트기록 저본

운동에 헌신한 다석의 제자 함석헌은 사상적으로 스승을 떠난 이단아 혹은 돌연변이였던 걸까? 이 의문을 풀 실마리는 <다석 씨알 강의>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실린 민주주의와 4·19혁명에 관한 류영모의 말에서 함석헌의 씨알 사상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더불어, 다석 사상은 결코 하나의 틀로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세계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류영모는 백성, 민중을 순수한 우리말로 ‘씨알’이라고 썼다. 씨알이란 말은 원래 있던 말이지만 민(民)을 씨알이라고 표현한 것은 류영모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씨알이라는 말을 널리 퍼뜨린 사람은 함석헌이었다. 류영모가 쓴 씨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다. 짝이 안 뜬 씨알은 민(民)의 뜻으로 쓰고, 짝이 뜬 씨알은 얼(靈)의 뜻으로 썼다. 이 책에선 민중을 뜻하는 씨알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석은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공자, 노자 등 여러 성인을 두루 좋아했다. 다석은 또한 <한야심경>을 때마다 암송할 정도로 불교의 가르침에 심취했고, <중용>과 <노

자>를 우리말로 완벽할 정도로 유학과 노장 사상을 깊이 탐구했다. 그는 동서 사상을 회통시켜 대통합을 이룬 큰 사상가였다. 다석은 여러 성인들에게서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보았다.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하느님의 생령인 얼(성령)을 공자는 덕(德)이라 하고, 부처님은 법(法)이라 했으며, 노자는 도(道)라 하고, 예수는 얼(靈)이라고 한 것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름만 다를 뿐 실체는 같다는 것이다. ‘얼나(참나)’로는 예수, 석가, 공자, 노자가 하나로 같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보낸 영원한 생령인 얼나를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 석가와 같은 하느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다석이 말하는 하느님은 기독교서 섬기는 인간 모습을 한 인태신이 아니라, ‘없’이 계시는 남 ‘빔(空)’, ‘태허공(太虛空)’이라 표현되는 진리의 근원을 가리킨다.

다석은 이 책에서 말한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말씀과 법(法)이요, 로고스와 다르마가 다를 게 없어요. 진리(法)는 그 이상 더 없으니 이를 믿습니다. 하느님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삶(生)의 맛을 참으로 알고 삶의 맛을 참으로 아니까 영생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수신기(受信機)예요. 하늘 방송을 듣는 수신기. 우리는 작지만 작다고 큰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라고.

다석 류영모는 말(言) 속에 진리가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다석은 자신이 궁극한 이 세계와 존재의 의미를 서양서 만들어진 철학 용어나 종교 학자가 아닌 순 우리말, 우리글에 담고자 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한학(漢學)의 대가인 다석은 한자 한 글자에 철학 개론 한 권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파자(破字)’를 해서 한자 생성 원리를 밝혀 거기서 철학을 깨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말과 우리글을 아끼게 됐다. 다석은 한글을 소리글자이면서 동시에 깊은 철학과 뜻을 지닌 뜻글자라고 보았다.

이 책에 실린 45편의 강의 내용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 말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알라’라는 말이다. 다석은 1960년 9월 23일에 쓴 시조 <알라>를 중요시 여겨 여러 차례 강의했다. ‘알라’는 꼭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빔(허공)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면서 참나임을 스스로 깨쳐 말하는 뜻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559년 석가탄신기념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재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특별한정판으로 생산되며 주문에 의해서 사찰에만 공급합니다.

■ 가격 : 15,000원 (초파일 이후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ihwa.com 02)3663-6777

능인향당

읽기만 해도 부처님의 일대기 一代記를 흰히 암기할 수 있다!

큰 스님들의 적극적 후원으로 발간하게 된 책,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과 교육원장을 지내신, 원로의원 元老 義員 여산(如山) 암도(岩度) 큰스님의 추천도서.

다종교 사회에서 특히 기독교 천주교에 밀려 쇠퇴일로에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알기 쉬운 혁신적인 의식儀式과 확실하고 정확한 교리 教理.

만성(萬) / 값 8,000원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02-3672-7181) 서점에 있음. 다량주문 (010-2465-1357)